"성인과 범부 따로 없으며 삶과 죽음 다르지 않아 분별심과 집착이 문제지"

세계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참선은 산중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산중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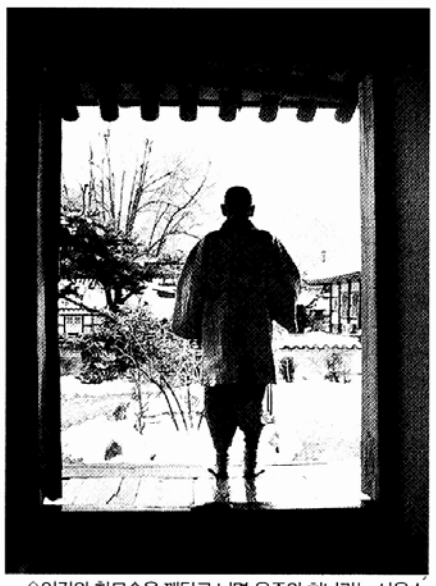
원래 화두선의 성립배경을 보면 초창기에는 대상이 모두 재가불자였다. 그들이 지식층으로 한정되기는 했으나 모두가 생활인이었던 것이다. 요즘 들어 조사선은 참선납승의 전유물처럼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두 참선법을 확립한 송나라 대혜선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공부를 지으라고 강조했다. 즉 시끄러운 가운데 힘을 얻음이 수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요즘 미국과 아프카니스탄의 전쟁 등을 보듯 인류가 욕망대로 살아가다보니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하게 된 것일까. 전 세계 인류가 조사선을 통해 해결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는 서양문명이 한국을 비롯하여 온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욕망으로 싸우는 투쟁의 시대'가 되었어.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이 세계는 인류가 살 수 없도록 되어버린단 말이야. 인류가 멸망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야. 자유자재의 자리인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거야. 그것만이 인간주의 타락을 구제할 수 있어. 불법을 깨닫는 참사람의 정신으로 구제해야 해. 인류 전부가 참사람인데 그걸 망각하고 살아. 자기 자신이 참사람인데 환경에, 과학문명에 끄달려서 노예가 되고 제정신이 없이 살지. 그게 문제야. 조사선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 우주가 모두 조화돼서 서로 의지하고 힘과 은혜를 입고 살면서 함께 공존한다고 파악해. 그렇기 때문에 조사선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은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지. 조사선 바탕위에선 누구나 자비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무너진 인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죽이고 사람도 못살게 만드는 거야. 인간은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이 있는데도 욕망 때문에 타락하고 싸우는 시대가 됐어"

스님은 사람들이 참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고 경책하셨다. 과학의 힘을 절대시 하는 현대인들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 중심적 태도가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말씀이다. 환경파괴는 이기적 산물이요, 역사발전의 원초적 힘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고 그것의 구체적 방법은 분열과 대립투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견해가 지배하는 시대에 대한 스님의 할이다.

스님이 잠시 산책을 하시고 싶다며 경내로 나오셨다. 스님은 조그만 연못 앞에 서서 선풍종가를 상징하듯 곧은 기세로 뻗어있는 백암산을 바라보시며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고 보면 우주와 하나야. 산을 보면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 흐뭇해"라고 되뇌이셨다.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고 나면 우주와 하나라는 서옹스님은 항상 선풍종가를 상징하듯 곧게 뻗어있는 백암산을 바라보신다. 스님은 산이 부처님의 참모습을 드러낸것 같아 흐뭇하다고 말씀하신다.

스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몇 마디 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야"

-그럼 깨달음을 이룬 후에는 수행이 필요치 않습니까?

"마음속에 이미 도가 있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하겠어. 다만 그 청정한 마음을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돼. 보통사람과 성인이 따로 없으며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아. 구별하는 마음과 집착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살아나가야 해"



◇깊은 산중에 계시기에 세상사 번잡한 소리에는 둔해도 자연의 조화에는 눈과 귀가 밝은 서옹스님. 스님은 선방수좌와 재가불자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 역할을 자처하신다.

"자신이 참사람인데 환경·문명에 끄달려 노예처럼 살고있지…"

스님의 견성성불은 점오가 아니라 자성(自性)이 곧 진불(眞佛)임을 깨우치는 돈오이다. 인간의 본성을 대상화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부터 깨달음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며, 그 본성을 아는 것이 그대로 불타라는 것이다.

-스님,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중생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 하는 대로 파동이 일어나. 남을 건강하라고 하면 생명파동이 일어나고, 남에게 잘 되라고 하면 자신도 잘되고 가족 민족 인류가 잘돼. 나만 행복하면 될 것 같지만 주위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잘되는 것이야"

스님은 이어 "물을 보면 물이 되고 꽃을 보면 꽃과 하나가 되어있다고 해도 본래 없는 것이 아니고 비었다 해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야. 무엇도 널 구속하기 어려운데 누가 널 어쩌겠어.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고, 입은 담론하는 것이고, 손은 잡는 것이고, 발은 분주히 움직이는 것. 이들은 서로 차별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니 흔들림이 없어. 실체가 없으면 자유로이 행동하고, 이 자유자재한 마음이 곧 지혜야"라고 설했다.

스님은 어려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원리라며 '자비무궁(慈悲無窮)'의 가르침을 주셨다.

"인간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존중하고 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이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본위의 생각을 용감하게 버려야 해. 혹, 나는 자비심을 베푸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비심이 아니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통일이 백번 낫겠지.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자비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불자들에게 더없는 수행의 노정이야.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해"

스님은 "내가 저녁에 누구 만날 일이 있어. 오늘은 백양사에서 밥 먹고, 잠자고 가…," 스님은 재차 하루 묵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을 친견하고 인간의 가장 깊은 만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짧으면서도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만남에 대해.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현봉스님

세상사람들의 권위는 대개 자신의 신분과 명예에 의해 결정된다. 명함에 그어진 몇 줄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권위라고 믿었던 것들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런데도 그 별 볼일 없는 것들에게 휘둘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 비해 출가자의 권위라는 것은 당연히 그의 수행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분들의 수행을 내가 한마디로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휘익 일어나는 바람처럼 느낄 수는 있다. 세간에선 불혹의 나이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지만 불가에선 수행자의 눈을 통해 그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발심하에 수행하는 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반짝인다. 공부에너지가 모여서 빛나기 때문인데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담아 종이에 쏟아부으면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바로 지혜의 불이다. 안광이 혁혁한 것을 자랑삼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세에 눌려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른 지혜의 불꽃이 아니다. 자비심이 그득한, 내면 깊숙이 자리한 수행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그런 빛나는 눈을 가진 수행자는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다. 현봉(玄鋒) 스님이 그런 눈을 가진 분이다. 스님을 만난 첫 날, 나는 마음갈피 속에서 저절로

송광사 종무전산화로 재정 투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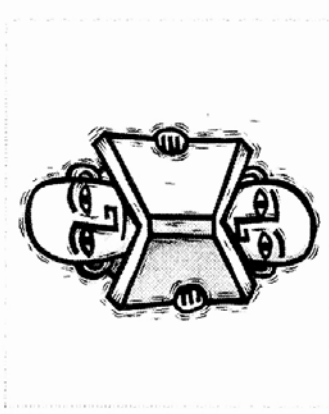
본사 주지이면서 자동차도 없어

존경심이 피어났다. 스님을 만나지 않고는 지닐 수 없는 그런 마음이다. 오래 전 불가와 인연을 맺게해주신 덕숭산 혜암 큰스님을 뵈올 때 느꼈던 마음이 되살아 난 것이니 너무 오랫동안 선지식을 가까이서 뵙지 못한 까닭이리라. 그동안 선지식들은 너무 멀리 계셨다. 아니, 어쩌면 내가 너무 선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머물며 그 일상까지도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을 '선지식'이라 생각하는 내게 스님과의 만남은 눈푸른 선지식을 만난 것만 같았다. 그것은 소박하되 언제나 수행자의 본분을 놓지 않고 정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봉 스님에게는 본사 주지스님들이 지닌 위엄과 자동차 같은 것은 아예 없다

놀랄 정도로 소탈하신 모습과 따뜻한 눈빛 사이로 칼 같은 광채가 번뜩 스친다. 그 잠깐동안의 빛이 사라지고 나면 아주 평범한 스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디서나 뵈올 수 있는 그런 스님으로 말이다. 늘 수행과 노동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봉스님을 보고 '송광사 주지스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커진다. 그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난다. 아무도 주지스님으로 보지 않는 데에는 승속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방수좌 출신만이 지닌 독특한 기운은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스님 말씀대로 그냥 농사나 짓다 어쩔 수 없이 본사주지를 하게 된 분이 지니는 매력 말이다. 아무리 봐도 그냥 농사나 짓고 참선수행만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송광사 종무행정을 완벽하게 전산화시켜 제방을 놀라게 한 것만 봐도 현대적 감각과 능력도 남다르게 지니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

오래 전 동학사강원에 있을 때 남도 쪽에 갔던 도반스님이 눈이 번쩍 뜨일 경전하나 복사해왔다며 내놓는데 보니 〈대전화상주심경〉이었다. 내용에 불교학 사전 속에선 찾아 볼 수 없는 확연함이 있었다. 게다가 이 책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연을 지니고 있다. 어느 시골의 노인이 지나가는 엿장수의 리어카에서 건져올린 보물이었단다. 자칫했으며 시골의 집 벽지나 불쏘시개가 될 뻔했는데 세월이 흘러 공부 잘 하는 수좌스님의 손에 들어가 선방에서 읽히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그 책을 마저 보고 싶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대중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빠져 나와 책상서랍에 넣어 두었던 책을 꺼내 돌아서는데 도반 하나가 따라 붙었다. 우리는 그날 추운 개울가에서 후래시를 비춰가며



그 책을 읽으며 꼬박 밤을 새웠다. 살아 움직이는 언어를 만나니 죄복에 앉아 답답하게 꼼지락거리던 생각들이 일시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때는 그 책이 나의 선지식이었다. 깊을 '심(深)'자를 '골수에 사무친다'로 표현하며 '도를 알기 위해선 버리고 또 버려라. 다만 고요히 앉아 밤낮으로 돌이켜 비춰보면 해골 속까지 다 비추어 오온이 단박에 부서지리라.' 그렇게 공부하라는 선지식의 말씀에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옛날에 그 책을 구한 수좌스님이 번역본을 내 놓았다고 해 한권 구해서 책장에 꽂아두곤 까맣게 잊어버렸었다. 우연히 며칠 전 꺼내 읽다가 깜짝 놀랐다. 번역자의 이름이 '현봉(玄鋒)'이었다. 몇 군데 전화해 보고 나서야 송광사 주지 스님임을 믿을 수가 있었다. 그래, 스님에게 처음 느꼈던 그 소탈함 뒤에 있던 그 빛이 바로 스님의 수행과 지혜의 불꽃이 지나간 흔적이었나 보다. 나는 보는 성품으로만 그냥 사람을 볼 줄 알았지, 깨닫는 정기로 분명하게 보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하긴 그것도 자기 업을 따라 나타나는 법이니 내게 지혜가 없음 때문이리라.

▩ 서울 반야사 주지

도서출판 참수행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참수행

삶과 죽음, 온갖 번뇌 망상과 괴로움, 이 모든것을 초월적 참수행으로 말끔히 해소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는 목적이 있다.



각권 10,000원 / 률정지음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chamsuhaeng.co.kr
E-mail : champyc@chamsuhaeng.pe.kr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제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변비가 낳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천식이 멀어졌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찰나의 깨침

중국의 백림사(아북성 조연)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우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깨침의 숲을 거니는 기쁨(환희)을 몸소 경험해 보십시오.
- 세속적인 삶에서의 집착과 번민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절대적인 평온과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서의 소망을 실현 합니다.

□ 마음과 실체 없음을 체험
□ 생사와 시공을 초월한 무한의 세계를 체험
□ 스스로 업장소멸과 전, 외가 조상 천도 확인

부족함없이 사는 지혜를 자녀에게도 가장 값진 유산으로 남겨 주십시요

수련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총마음수련

心田堂 대광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교 사암연합회

임원 취임 공고

원 로 : 덕명 점곤 성호 만승 성진 범천 법광
고 문 : 정암 해월 원각 대광
회 장 : 지모 (묘법사)
수석부회장 : 법혜 (도선사)
부 회 장 : 초삼 (옥정사), 순행 (보명사)
사무총장 : 혜각 (극락암)
총 무 : 수운 (대자원)
교 무 : 무유 (금산사)
재 무 : 지만 (심우정사)
포 교 : 청봉 (보림사)
사 회 : 해성 (해광사)
통 사 : 묘관 (덕명사)
감 사 : 도실 (광명사), 수현 (반야선원)
청엽 (미황사)
봉사위원 : 일승행 (수효사), 이태원 (대성암)

이상 27명의 임원이 불기 2546년 1월 17일 오후 6시 기장군청 9층 회의실에서 제6대회장 이 취임식을 통해 여법하게 취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6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불교사암연합회